

합격
기준

박문각 임용

동영상 강의의 www.pmg.co.kr

중등교원임용 전공미술 대비

정샘 미술이론 하

정샘 편저

PMG 박문각

Preface

머리말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미술 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부단히 연마하며, 마침내 임용시험의 높은 산을 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의미와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본서는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가 될 사범대학교 학생들, 미술대학 학생들, 교육대학원 학생들과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미술 교사를 위해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본서의 이론은 미술교육이론, 미술교육과정, 조형론, 서양회화, 전통회화, 조소, 서예, 판화, 색채학, 디자인, 공예,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한국미술사, 한국 현대미술사,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 미학, 비평 등으로 장르와 영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미술 임용시험의 특성상 서구 미학과 예술론, 조형론과 함께 미술교육론 등의 역사와 개념들을 백과사전적으로 총망라하거나 개별 개념들을 천착해 다룬 책입니다.

한편, 학문의 입문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학자들을 위한 도서는 쉽고 평이하면서도 내용은 깊이가 있어야 하며 학문연구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구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대학의 미술이론 관련 학과에서 강의 중인 미술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미술교육학과, 교육대학원생들의 학문 경지를 넓혀 주는 필독도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등교사임용시험 제도와 기출문제의 경향에 제시된 핵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의 기반이 되는 중요 도서와 사전, 논문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1.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중요 영역별 핵심이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교과 교육학의 최근 이론과 사상 및 미술과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미술의 개념과 이론을 백과사전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미술의 특성상 시각적 게시물과 미술 작품 등은 모두 컬러 형식으로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더욱 최적의 효과를 추구하였습니다.
4. 영역별 중요 이론의 핵심 문장과 함께 심층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여 기초학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5. 본문에서 <꼭 알아두기>는 해당 내용의 핵심적인 용어 중심으로 요약 제시했고, <읽기자료>는 해당 내용의 배경과 맥락적 지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등교사임용시험 제도는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다시 서술형으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어가면서 점점 미술교과 지식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여러 권의 참고도서를 읽어야 하고, 수많은 이론을 이해, 암기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늘 예측하기 어렵도록 불규칙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될 수 있을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용시험은 합격이 중요합니다. 합격하려면 문제가 요구하는 요지와 관점에 딱 맞는 정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요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수록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정샘은 최근 10년간 연속으로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경향과 예상 영역에 대한 예시 방향이 실제 출제 문제들과 근접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서 스스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정샘과 함께 해온 수많은 수강생과 합격생들, 한결같이 정샘에게 믿음과 신뢰,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연구하며, “쉽고, 재미있고, 최단기 합격”에 이를 수 있는 명품 강의가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사석성호(射石成虎)”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본서와 함께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심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정진하며, 각자 소망하는 바를 꼭 이루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노력하며, 늘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교사라는 소명에 대한, 심오하고 감동적이며 열정적이고 고무적인 어조와 가르침에 대한 고통과 기쁨”

양현재(養賢齋)에서

정샘



Part 01 동양 미술사

Chapter 01 인도 미술	... 10
Chapter 02 일본 미술	... 20
Chapter 03 중국 미술	... 28
01 선진 시대	... 28
02 진·한 시대	... 32
03 육조(위진 남북조) 시대	... 34
04 수·당 시대	... 42
05 오십국 시대	... 48
06 송 시대	... 54
07 원 시대	... 64
08 명 시대	... 70
09 중국 20세기 미술	... 76

Part 02 한국 미술사

Chapter 01 선사~원삼국 시대 미술	... 84
01 선사 시대	... 84
02 삼국 시대	... 92
1. 고구려 · 92	
2. 백제 · 106	
3. 신라 · 116	
Chapter 02 통일신라 시대 미술	... 126
01 회화와 서예	... 127
02 불상 조각	... 128
03 불교공예	... 138
04 도자	... 140
05 건축	... 142
06 탑파 건축 - 삼국통일 이후 석탑 건축 발달	... 146
Chapter 03 고려 시대 미술	... 152
01 회화	... 153
02 조각	... 164

03 공예	... 172	Chapter 05 근대 미술	... 296
04 고려 불사 건축	... 180	01 한국 근대 미술사	... 296
		1. 한국 근대 미술사 · 296	
		2. 한국 근·현대 미술단체 · 300	
Chapter 04 조선 시대 미술	... 190	02 한국 근대 서양화 · 동양화	... 302
01 조선 시대의 회화	... 190	1. 서양화 · 302	
1. 시대적 배경과 미술사 · 190		2. 1920~194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06	
2. 사상적 배경 · 190		3. 동양화 · 318	
3. 궁중 회화와 화원 체제의 회화적 특성 · 191		03 근대 조소	... 328
4. 초상화 · 194		1. 근대 조소의 흐름 · 328	
5. 조선 회화의 시기별 구분 · 196		2. 한국 근대 조각의 특징 · 328	
6. 서예 · 258		3. 근대 조각가 · 329	
7. 불교 회화와 조각 · 260		04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과 현대 미술작품	... 336
02 조선 시대의 공예	... 264	1. 1980~196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36	
1. 도자 공예 · 264		2. 197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46	
2. 목공예, 칠공예 · 272		3. 198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48	
03 조선 시대의 건축	... 276	4. 1980년대 이후 한국 조각계의 흐름 · 351	
1. 특징 · 276		05 근대 건축	... 351
2. 주요 건축물 · 277			
3. 조선 시대 건축의 구조적 이해 · 284			



Part 03 서양 미술사

Chapter 01 원시~근대 미술 ... 354

01 원시~중세 미술 ... 354

1. 원시 미술 · 354
2. 고대 미술 · 358
3. 중세 미술 · 380

02 르네상스~근대 미술 ... 398

1. 르네상스 · 398
2. 매너리즘 - 새로운 미술 양식의 탄생 · 424
3. 바로크 미술(17세기) · 426
4. 로코코 미술(18세기) · 444
5. 계몽주의 회화 - 바로코코적인 미술 · 452
6. 근대 미술 · 456

Chapter 02 모더니즘~현대 미술 ... 482

01 20세기 이전의 현대 미술 ... 482

1. 인상주의 · 482
2. 신인상주의 · 490
3. 후기 인상주의 · 492
4. 상징주의 · 498
5. 분리파 미술 · 499

02 20세기 초의 현대 미술 ... 500

1. 야수파 · 500
2. 표현주의 · 504

3. 20세기 표현주의-독일 표현주의와 칸딘스키,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 508

4. 신즉물주의 · 512
5. 입체파 · 516
6. 오르피즘(Orphism) · 522
7. 소박파 미술(Naive Art) · 524
8. 미래주의 · 525
9. 러시아 광선주의 · 528
10. 절대주의 · 529
11. 구성주의(구축주의, 러시아 전위미술) · 532
12. 신조형주의(De Stijl) · 534
13. 에콜 드 파리 · 537
14. 다다 · 538
15. 초현실주의 · 546

03 1945년 이후의 양식(절정의 모더니즘) ... 564

1. 코브라 그룹(CoBrA, 실존주의 미학) · 564
2. 공간주의(Spatialism) · 565
3. 앵포르멜(Informal, 형을 부정함) · 566
4.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 568
5. 색면회화[色面繪畫, Color-Field Painting], 포스트 회화적 추상, 시스템릭 페인팅] · 570
6. 후기 회화적 추상('탈회화적 추상') · 571
7. 누보레알리즘(Nouveau Réalisme, 입체) - 신사실주의(평면) · 572
8. 네오다다(Neo-Dada) · 578
9. 미니멀 아트(Minimal Art,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적용) · 582
10. 팝아트(Pop Art) · 588

- 11. 옵아트(Optical Art, 망막의 미술, 지각적 추상) · 600
- 12. 키네틱 아트(Kinetic Art) · 602

04 모더니즘의 해체와 그 이후의 현대 미술 ... 606

- 1. 극사실주의(Hyperrealism, 포스트 팝, 포스트 미니멀) · 606
- 2. 대지미술(Land Art) · 610
- 3. 개념미술(Conceptual Art) · 614
- 4. 플럭서스(Fluxus) · 618
- 5. 행위미술(Performance Art) / 퍼포먼스 / 해프닝 · 620
- 6. 설치미술(Installation Art) · 621
- 7. 비디오 아트(Video Art) · 622
- 8. 과정미술(Process Art) · 625
- 9. 미디어 아트(Media Art) / 뉴미디어 아트 / 매체예술 · 626
- 10. 레이저 아트(Laser Art, 하이테크 아트, 스카이 아트) · 630
- 11.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낙서미술) · 632
- 12. 트란사반구아르디아(Transavanguardia) · 634
- 13.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 노이에 빌덴 (Neue Wilden), 뉴 페인팅 · 634
- 14. 배드 페인팅(Bad Painting) · 635
- 15. 신행상주의(Neo-Figurativism) · 636
- 16. 신구상회화(Figurative Painting) · 637
- 17. 페미니스트 아트(Feminist Art) · 638

05 198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 ... 642

- 1. 트루리즘(Truism) · 642
- 2. 신킴념주의(Neo-Conceptualism) · 643

- 3. 네오지오(Neo-Geo) · 644
- 4. 네오 팝 아트(Neo-Pop Art) · 645
- 5. YBAs(Young British Artists) · 646

Part 04 미학

Chapter 01 고대~중세 미학 ... 652

- 1. 미의 개념 · 652
- 2. 미학자 연구 · 653

Chapter 02 근대 미학 ... 656

- 1. 근대 미학 이론 · 656
- 2. 미학자 연구 · 659

Chapter 03 현대 미학 ... 660

- 1. 현대 미학 이론 · 660
- 2. 미학자 연구 · 665

Chapter 04 예술 정의론(영·미의 현대 미학)... 670

01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 ... 670

02 서양 미술 방법론 ... 676

03 예술과 미메시스 ... 678



정샘 미술이론^(하)

Part

01

동양 미술사

Chapter 01 인도 미술

Chapter 02 일본 미술

Chapter 03 중국 미술



인도 미술

인도는 BC 4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또는 종족이 출몰하면서 종교와 관습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은 복잡한 형식과 양식을 지녔다.

01 고왕조 미술(BC 320~230년경)

1. 마우리아(Maurya) 왕조

마우리아 왕조 시대 때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어 정치적인 미술품이 나타났다. 이 왕조의 3대 왕인 아소카(Asoka) 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자신의 왕도에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웠는데 이는 주로 그리스와 오리엔트 양식을 모방한 것이다.

알아두기

석가와 관계있는 땅에 석가를 기념하는 석주(石柱)를 세웠고 석가와 제자들의 유골을 보존하는 '스투파'라는 탑을 세웠다.

산치대탑	사리를 넣어둔 무덤(BC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재건축되었다. 원래 아소카가 세운 탑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BC 1세기에 이 지역을 통치한 사타바하나 왕조 시대에 지금의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아소카왕 석주	불교 성지에 기념물로 세운 것(위 - 사자 / 아래 - 소, 코끼리)
스투파	석가와 제자들의 유골을 보존하는 탑



아소카 왕 석주



아소카 왕 석주



2. 송가(Sunga)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은 송가 왕조는 동부의 갠지스강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되어 불탑 조영 사업이 성하였다. 이들 불탑의 형식과 재료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동방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인도에서는 전조(塼造), 중국에서는 다층 누각식의 전조와 목조, 우리나라에서는 석조와 목조·전조, 일본에서는 목조와 불탑이 많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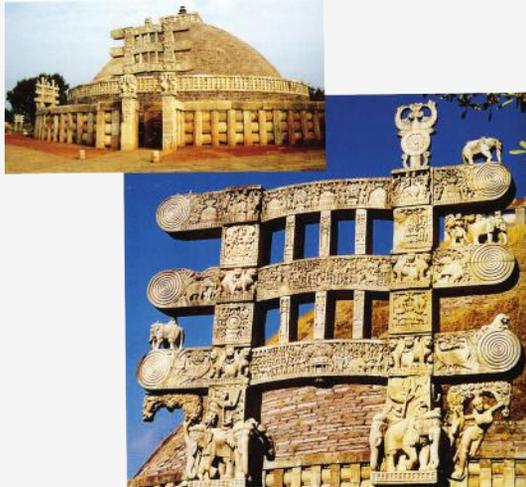
3. 안드라(Andra) 왕조

안드라 왕조는 송가 왕조에 이어 불교 조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인도 중부의 산치(Sanchi)는 불탑과 다양한 조각상이 장식된 탑문이 서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외래적 요소를 인도 고유의 전통과 함께 융합한 것이다. 아직은 불상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 법륜(法輪), 불탑, 연꽃, 보리수 및 공백(空白) 등의 상징물을 표현하였다. 또 인도 전통의 조형성을 지닌 신상을 많이 제작하여, 이후 힌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알아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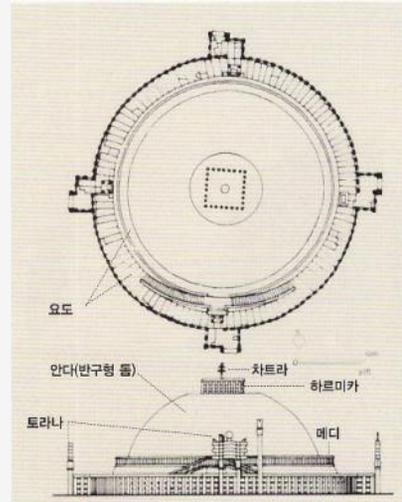
2세기 말부터 불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간다라 양식이나 마투라 양식과는 다르다.

산치대탑문	다양한 불전·설화를 조각하여 세운 것
아마라바티	외래의 영향을 잘 소화하여 인도 조각의 전통을 세운 조각상



[상] 산치대탑(대사리탑) | 기원전 3세기, 기원전 150~50년경, 송가 왕조와 안드라 왕조 때 확장됨. 산치. 인도

[하] 대사리탑의 동문(토라나, torana) | 출산, 풍요, 모든 생명의 원천을 상징한다.



주위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돌로 된 울타리(베디카)를 둘러싸고 사방에는 전기 안드라 시대에 만들어진 문(토라나)이 있다. 이 4개의 문에는 불전이나 본생담의 내용을 깊은 양각기법으로 새긴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02 쿠산 왕조(78~226)

인도의 서북지방은 서방세계와의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문화교류의 중요한 지대로서, 쿠산족은 이 지역을 기점으로 일어나 간다라 지방에 수도를 정하고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전파해 불탑의 조영과 불상, 불화의 제작 등 불교 미술이 크게 발전했다.

I 간다라 미술(BC 2세기~ / 전성기: AD 1~3세기, 혹은 5세기) I

- ① BC 2세기~AD 5세기, 고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現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달한 그리스·로마 풍의 불교 미술양식이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미술은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온 헬레니즘과 융합하여 '간다라 미술(Gandhara Art)'을 낳았다.
- ② 간다라 미술은 인도의 불교적 주제가 그리스 미술의 감각과 기술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다. 간다라 유파는 로마 종교의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 전통에 따라 부처를 젊은 아폴로 같은 얼굴에 로마 황제와 비슷한 옷을 입혀 묘사했다.
- ③ 이러한 간다라 미술의 발달은 건축에 있어서 석굴 양식과 공예의 당초문, 인동문 양식 등과 함께 서역,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방세계로 전파되었다.

알아두기 간다라 미술 조각의 특징

1. 간다라 미술의 조각

- ① 전기
석조를 주로 함. 석조는 모두 청흑빛의 편암(片岩)과 천매암(千枚岩)을 썼다.
- ② 후기
흙으로 토우(土偶)를 만드는 소조(塑造)만을 전적으로 행함. 소조에는 스투코를 사용하였다.

2. 간다라 미술의 내용

건축의 장식의장을 제외하고는 석가를 중심으로 한 불전도(佛傳圖)가 가장 많고, 예배대상인 불상·보살상과 천부(신)상(天部[神]像)도 빈번히 만들어졌다. 모두가 부조이며 불·보살 등 단독석상도 환조(丸彫)가 아니라 배면을 평평히 한 고부조(高浮彫)로 하였다.

3. 형태, 자세, 복식

조각은 얼굴 모양이나 의습(衣褶) 등이 모두 그리스풍으로, 사실성이 풍부한 특색을 지녔으며 서방의 모티브와 상(像)의 형식을 그대로 본뜬 것도 적지 않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행해졌던 헬레니즘 미술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

4. 조각의 특징

- ① 석조: 청흑빛 편암, 천매암
- ② 소조: 스투코(소석고 + 대리석 가루 + 점토분)



간다라 불상 | 1세기



간다라 보살 | 2~3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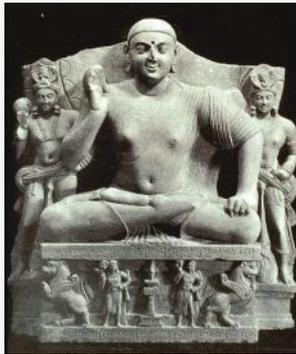


I 마투라 미술(BC 2세기~AD 5세기) I

- ① 인도 북부의 우타르프 라데슈 주, 델리 동남동 약 140km의 야무나(자무나) 강 서안에 면한 옛 도시 마투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조(石彫)를 주로 한 미술이다.
- ② 인도 고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마투라(Mathura) 미술**’은 ‘간다라 미술’보다 인도 고유의 예술성을 지녀 이를 바탕으로 ‘**힌두 미술(Hindu Art)**’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힌두교는 브라만, 비슈누, 시바 등의 다신적 계급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창조, 생산 등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하여 순결한 그대로의 나체상이 제작되었다.
- ③ 재료는 적색 바탕에 황색과 백색 반점이 있는 **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서기 2세기경 마투라에 서는 도티(치마)만 입고 목이 비치는 얇은 겹옷을 걸친 소위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인도적인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간다라와는 달리 소라 모양의 육계도 함께 표현되었다.

💡 **알아두기** 마투라 미술의 조각

- 1. 시대와 불상형식: 2세기 초두부터 인도 내부로서는 처음으로 불상을 표현했고, 같은 세기 중엽 무렵까지에 얇은 옷을 걸친 마투라 독자적 불상형식을 성립시켰다. 순 인도풍의 불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2. 굽타 시대는 마투라 조각이 활력을 되찾아 인도 고전문화의 고양기에 알맞게 높은 이념과 비약적으로 세련된 조법을 가지고, 새로운 조형규범에 근거한 새로운 양식의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낸 시기이다. 자말푸르(Jamalpur) 출토의 불입상 2제(5세기)가 그것으로서, 사르나트의 불상과 함께 굽타 불상의 양식적 완성을 끝냈다.



마투라 불상



마투라 불상

◆ **간다라 양식과 마투라 양식의 비교**

구분	간다라 양식	마투라 양식
머리카락	곱슬머리, 물결모양, 장발	직상모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름하고 입술이 얇다. • 콧대가 우뚝하다. 	둥글고 입술이 두툼하다.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천을 두르고 있다. •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 	상의를 벗고 있거나 얇게 걸치고 있다.

03 굽타 왕조(320~550, 양식은 왕조 붕괴 이후의 영향까지 약 350~650년의 기간으로 봄)

굽타 왕조는 인도 고유의 마투라와 간다라 미술을 융합한 동·서양식의 종합적 미술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 조각

- ① 북서지방에서는 간다라의 헬레니즘계(系) 미술이 전시대의 석조를 대신하여 소조미술(塑造美術)로서, 4세기 말부터 단기간이나마 번영하였다.
- ② 남인도 미술, 즉 안도라 미술의 기여이다. 이는 왕의 초상이나 마투라 불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인체 표현의 여러 요소로 나타난다.
- ③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번영한 사르나트의 미술이다. 기법이 세련되고 익숙해진 점과 새로운 기준의 균제미(均齊美), 이상화시킨 조형 표현, 얇은 법의 표현 등이 뚜렷이 엿보인다. 굽타 시대의 마투라는 사르나트와 더불어 이 시대 불교 미술의 중심지이다.

2. 석굴사원

굽타 왕조 시대의 조형예술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석굴사원의 조영 사업이다. 인도의 석굴은 승려들이 수도하는 곳으로 '아잔타 석굴'은 인도 최대의 불교 석굴이다. 23개의 석굴이 있으며 이는 건축, 조각, 벽화 등에서 일체화를 이루는 불교유적으로 아시아권 불교 예술의 원류로 평가된다.



알아두기 불교미술의 전성기 - 석굴미술의 시작

조각에는 서양적인 요소가 없고, 부드러운 표정과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으며, 웃은 몸에 붙어 곡선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웅대한 구조와 능숙한 필치로 불교의 전설이 그려져 있는 아잔타 석굴 벽화는 인도의 대표적인 회화이다.

◆ 간다라, 마투라, 굽타 양식의 비교

구분	간다라 양식(1~3세기)	마투라 양식(1~3세기)	굽타 양식(4~7세기)	무굴 양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헬레니즘 양식의 영향 • 최초로 불상조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전통 양식인 힌두교 불상 • 풍부하고 육감적인 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투라 중심에 간다라 양식 가미 • 육감적 신체, 정신적 이상미 • 당, 통일신라에 영향줌 	세밀화 (라지프트)
머리카락	곱슬머리	직상모	곱슬머리	
얼굴형	가름한 얼굴형. 움푹 파인 눈, 뚜렷하고 얇은 입술(서양인)	둥근 얼굴형. 두꺼운 눈두덩 (중앙아시아)	둥근 얼굴 (서양인 + 동양인)	
옷주름	두껍고 사실적인 옷주름 (인체를 가림)	얇고 도식적인 옷주름 (인체를 드러냄)	얇고 도식적인 옷주름 (인체를 드러냄)	
사상	헬레니즘	고유	헬레니즘 + 고유	
영향			석굴미술 시작: 아잔타 → 원강 → 용문석굴 → 석굴암	



◆ 간다라 불상 조각과 회화



간다라 불상



간다라 불상 | 헬레니즘 양식



간다라 초기 불상 | 인도, 4~5세기



굽타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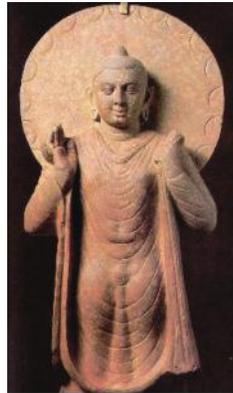
아잔타 제1굴 벽화, 연화수 보살(파드마파니 보살 - 측은자심의 화신) | 460~480년경, 프레스코 기법

- 보살: 열반에 들 수 있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돕는 것을 선택한 존재다.
- 사실적 묘사, 인물이 매우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마투라 불상 조각



마투라 불상



마투라 붓다 | 2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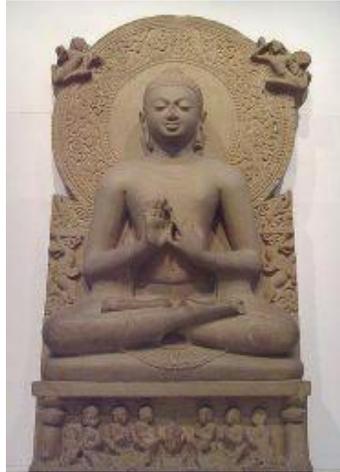


비슈누상 | 마투라, 5세기 전반

◆ 굽타시대 사르나트 불상 조각



마투라 불상 | 굽타, 5세기 전반
마투라의 자말푸르 출토



초전법륜상 | 굽타, 470년경 사르나트 출토



사르나트 불상 | 굽타, 473년

- 자말푸르(Jamalpur)에서 출토된 불입상의 경우 양 어깨를 덮은 옷은 간다라에서 도입된 것인데, 옷의 주름은 사실적인 표현의 간다라와는 달리 반복되는 줄 모양으로 바뀌었다.
- 사르나트 불상의 특징은 옷주름이 사라졌고, 단정하고 우아하며, 균정하고 달걀형 얼굴을 하고 있다. 불교상과 힌두교상의 상호 접근을 알 수 있으며, 치밀한 비례미,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고 목이 가늘며, 전체적인 비례도 짧다. 또한 이전에 볼 수 없던 파격적인 특징으로, 불상이 이루는 중앙의 축이 허리에서 좌우로 꺾여 있으며, 무릎을 앞으로 내민 것이다. 이전의 불상에서 느낄 수 있던 엄격성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암시되었다.

04 팔라 왕조(750~1174)의 힌두 미술

1

- ① 굽타 왕조가 망한 뒤 여러 작은 왕조로 분립되었던 인도 대륙에 동북 벵골 지방의 팔라 왕조가 왕국을 세워 13세기 이슬람이 침입할 때까지 세력을 유지하였다.
- ② 팔라 왕조에서는 힌두 미술이 융성하였는데, 힌두교의 주신은 브라만·비슈누·시바의 다신을 삼위일체로 하고, 이들은 주로 태양·보존·파괴를 상징하며 이 사상은 각양 각종의 조상으로 나타나 힌두교의 건물을 장식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육체를 신이 내려준 가장 생명력 있는 존귀한 것으로 여겨 육체의 관능미를 나타나게 되었다. 또 밀교예술(密敎藝術)이 성함에 따라 조상에도 생명의 움직임을 보이는 각종 양식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힌두 미술의 표현은 불교보다도 현세의 인간 생활과 결부되는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알아두기 춤추는 시바상, 마투나상이 있는 천계의 조각군 등



춤추는 시바 | 10세기

찰라 왕조는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다.
남인도의 고전 문화이며 금속과 주조기술이 뛰어났다.

05 이슬람 왕조(무굴제국, 1526~1857)의 회교 미술

1. 배경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창시한 세계 3대 종교로서 사라센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동쪽은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안을 지나, 서쪽은 한때 스페인까지 그 세력이 미쳤다. 인도는 팔라 왕조가 망한 뒤 정치적인 혼란기에 들어갔다. 13세기 이슬람교도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불교와 힌두교는 정치·문화·예술에서 이슬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슬람 문화예술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예술, 동양의 불교 문화예술과 아울러 세계 3대 문화권과 예술 계통의 하나로서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 회화

- ① 알레고리적인 세밀화와 초상화가 발달하였다.
- ② 14세기 이전 그림은 야자수 앞에 그린 불교 경전과 삽화들이 주를 이룬다.
- ③ 인도 서부의 자이나교에서 그림책을 제작하였다.
- ④ 자한기르 재위(1605~1628)기에 회화에서 극사실적 세밀화가 제작되었다.
- ⑤ 서북 지방에서는 민중 종교적인 라즈푸트화가 발달하여 세밀화와 쌍벽을 이루며 전개되어 후대의 인도 회화에 영향을 주었다.

알아두기 미니어처(miniature) 미술

이슬람 미술의 독특한 특색으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장식한 데서 시작되었다. '미니어처 미술'은 화려한 궁전, 왕후 귀족들의 초상과 전투, 수렵 장면과 남녀의 연애, 결혼 등의 각종 생활풍습과 동식물, 업식(葉飾), 문자의 도안 등을 주제로 하여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그림의 화법과 양식은 묵선을 중심으로 짙은 채색을 써서 제작되었다.



인도, 세밀화



자한기르상 | 인도, 1625, 세밀화



3. 건축

모스크의 플랜은 주랑(柱廊)·중정·배당(拜堂)을 세로로 연결한 형식과 비잔틴 성당을 모방한 중앙집중당(中央集中堂)의 형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슬람식 건축의 특색으로는 궁륭형의 천장 돔과 높은 첨탑, 그리고 회교사원인 모스크가 있다. 모스크는 엽식 도안과 아라비아 문자로 복잡하고도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아름다운 반구형 지붕의 돔(dome)과 높이 솟아 있는 첨탑, 모스크의 내외를 장식한 각종 도안과 문자는 호화로운 이슬람 건축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 타지마할 |

- ① 회교 미술의 특색인 둥근 지붕과 첨탑 그리고 아치로 되어 있고, 재료로는 대리석 등의 석재를 사용했다.
- ② 당초무늬의 부조가 건물을 장식하고 있다.



타지마할 / 모스크 | 1631~1647

둥근 지붕, 첨탑, 돔, 아라베스크 문양, 흰 대리석 사용, 좌우대칭의 균제미



바드샤히 모스크 |

1673~1674, 라호르, 무굴제국의 오랑제브 시대
오랑제브 시대의 미술은 정통 이슬람교를 추구했으며 모스크 건축이 활발했는데, 이는 왕권보다 신권 중심으로 변화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일본 미술

01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1. 아스카 시대(578~670)의 미술

크게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위나라와,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백제와 신라의 불교 미술 양식을 받아들였다. 백제의 아좌태자는 일본에 건너가 쇼오토쿠태자상을 그려주었다고 한다. 다카마쓰 옛 무덤의 벽화는 고구려 바탕에 토착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한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 회화 |

우리나라로부터 불교가 유입되었고, 쇼토쿠 시대에 호류사를 건립(화재로 중수)하였다. 호류사 금당벽화(고구려 담징), 다카마쓰 고분벽화, 구마도리(바림 또는 그라데이션)와 붉은 선의 윤곽으로 인한 긴장감을 지닌 철선법으로 표현되었다(불화가 아닌 일월, 성수, 사신, 피장자의 사후 세계를 표현했다).



호류지 금당벽화 | 아미타정토도, 7세기 말
당 문화와의 접촉, 서역 전래의 특이한 음영법인 '구마도리(바림 기법)'와 붉은 선의 철선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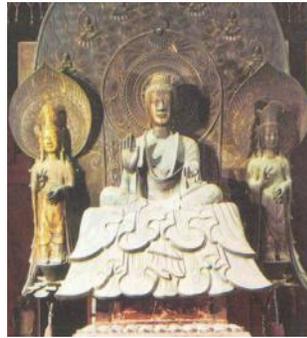


| 조각 |

- ① <금동석가여래삼존상>(623)은 방형의 이중대좌 위에 연변형(蓮弁形)의 대광배를 지니는 일광삼존 형식이다. 중국 남제의 복제(服制)를 수용하여 운강석굴에서 완성된 중국 북위 후기의 양식과 도상을 기본으로 동위-북주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더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② <목조관음보살입상(구세관음)>(7세기 전반)은 녹나무를 재료로 한 일목조(머리와 몸체를 하나의 나무로 조각한 조상법)로 표면에는 금박을 붙였고 금동투조제의 보관을 쓰고 있다. 또한 보주형 두광과 원형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중국 양이나 백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목조보살반가사유상 | 호류지, 7세기 전반



금동석가여래삼존상 | 호류지 금당, 623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고식설법을 결하고 있다.

| 건축 |

호류지 금당과 오층 목탑, 중문 등은 배흘림기둥, 굽받침, 소로와 첨차로 짜여진 공포 등은 고구려와 백제의 건축 형식 계통이며 나라 시대 이후에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호류지 오층 목탑 | 7세기 말, 아스카 후기 조각

2. 나라 시대(710~794)의 미술

중국 당나라 미술을 받아들여 불교 미술이 성행하였다. 공예문화가 발달하였고, 7세기 후반에 중국 당삼채가 유입되었으며, 납을 매용제로 사용한 녹유 도기가 제작되었다.

(1) 하쿠오(전기)

- ① 둥근 곡면의 조각, 부드러운 표정
- ② 불교 미술품, 불교가 가장 흥했던 시대

(2) 덴표(후기)

- ① 도쇼다이샤 중심
- ② 사실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알아두기 당화(가라에)

1.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회화양식. 짙은 채색, 정교한 표현, 비단에 설채
2. 불화뿐만 아니라 궁정 의식이나 귀족들의 주변을 장식하기 위한 회화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목조관음보살입상 | 호류지, 7세기 중엽



목조관음보살입상 | 호류지, 7세기 전반



목조구면관음보살입상 | 호류지, 일본 나라 시대, 당 7세기 말

02 헤이안 시대(794~1185)

1

견당사 파견을 중지한 894년을 분기로 하여 헤이안 전기와 헤이안 후기로 양분한다. 헤이안 전기는 나라 시대 이래 당의 문화가 일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궁중에서는 한시와 한문이 성행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9세기 후반에는 ‘가나’ 문자가 나타났고, 독자적인 일본 문화가 성장했다. 10세기경에는 권문세가의 장원이 늘어나 화려한 궁정 문화가 조성되었다.

헤이안 후기에는 자연을 동경하여 자연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주택 건축 양식이 생겼다. 이때 야마토에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 양식이 성립되었고 이후 일본 문화의 고전이 되었다. 11세기에는 궁정 문화의 완성, 정토교 미술이 유행하였다. 한편 민중에 관심을 돌린 설화 문화와 민중의 모습을 소재로 다룬 에마키모노가 나와 귀족사회 말기의 새로운 시대적 기운을 반영했다.



허공장보살, 보현보살상 | 헤이안 시대 후기

- ① 무사계급의 지위가 확고해짐. 당으로부터 밀교 유입 - 화려, 장식적
- ② 헤이안(교토) 시기와 후지와라(카마쿠라로 이전했던 시기) 시대
- ③ 9세기 중국 월주요의 영향으로 녹유도와 수주, 완 등 새로운 기형이 등장
- ④ 녹유와 경질 회유 도기가 제작



알아두기 얇은 금박을 오려 붙이는 기리가네 기법

1. 원본 채색화에 금은니를 첨가하는 기법
2. ‘야마토에’, ‘가라에’ 유행
 - ① 야마토에: 9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 초기에 발생하여 12~13세기 초에 유행한 대표적 순수 일본 회화양식의 하나로 일본의 고유한 전통 양식이란 뜻. 궁정과 주택의 담벽, 병풍 등에 그려진 장식적 벽화. 강렬한 색채의 장식적이고 세속적인 회화이다. 구도가 유연하며, 색채가 강렬하고 장식적이다.
 - ② 가라에: 일본 헤이안 시대 이후로 사용한 용어. 중국에서 수입된 그림, 혹은 중국을 제재로 했던 일본 회화를 지칭함. 주제는 이국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산이 높고 험준하며, 인물을 지나치게 장식하는 등의 표현상 특색을 갖고 있다.

03 카마쿠라 시대(1185~1333)

교토의 공가(公家)와 카마쿠라 지방의 무가(武家)가 대립 또는 교류하면서 이원적 문화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남송의 건축 양식이 채용되고 덴포 양식의 복고적인 불상 조각이 조성되었다. 후반에는 무가의 지지를 받은 선종의 송원 문화가 카마쿠라에 이식되어 수목화가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정도종·진종·시종 등 신흥 종파와 남도 불교는 포교활동에 에마키모노를 활용했고, 수이자쿠 미술도 성행했으며 민중의 감각이 미술에 나타나기도 했다. 말기에는 교토·카마쿠라에 중국 취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① 사무라이 계급이 실권을 잡고 막부 정치가 등장하였다.
- ② 선종의 유입, 남송의 영향 받음. 후반에 수목화가 등장하였다.
- ③ 중세 사원 건축 양식이 완성된 시기이다.
- ④ 사실적 조각, 대규모, 역동적이며 ‘에마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수의 에마키모노가 제작되었다.
- ⑤ 사실적 회화 유행, 쇼군·승려들의 초상화, ‘스이자쿠가’ 회화가 왕성하게 제작되었다(일본의 신들은 부처가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고 믿는 신앙). 묘에, 조닌, 가오, 도지 등의 작가가 활동했다.



도다이사대불전



무저상 | 운케이, 13세기

04 무로마치 시대(1333~1573)

1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은 선종 미술과 무가(武家)의 카라모노[唐物] 취미 등으로 상징된다. 송원화(宋元畫)를 규범으로 한 도석 인물화가 부흥하고, 카오오와 모쿠안 등의 선승 화가가 나타났다.

슈분은 남송과 조선의 산수 양식을 받아들여 수묵화를 일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467년부터 히가시아마 문화가 탄생했는데 이 시대 문화적 성격은 서원·정원·차·꽃 등을 취미로 하는 왕조 문화와 민중 문화의 성숙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적인 쇼헤이화와 공예 등이 발전했다.

카노오파의 카노 모토노부는 야마토에 기법을 가미하여 근세 회화의 기초를 확립했다. 14세기에 이르러 수묵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화(송·원 화풍)가 나타났는데 가오, 모쿠안 레엔, 무도 슈이, 셋슈 등이 대표적이다.



습득도 | 카오

- ① 기독교 선교사 입국, 선종의 유행으로 불상 조형이 쇠퇴하고 사찰을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 ② 송의 목계 영향으로 도석 인물화와 명대 절파 화풍이 유행하였다. 셋슈는 송·원 화풍의 영향으로 견고한 구성과 실재감이 풍부한 개성이 강한 산수화 양식을 만들었다.
- ③ 무가 문화와 서민 문화, 토사와 화파가 형성되었으며, 풍속화가 유행했다.
- ④ 금박지에 채색하는 야마토에 화조도 병풍이 전한다.
- ⑤ 료안사의 돌 정원 가레산스이 양식을 정립(선 사상)하였다.
- ⑥ 다도, 정원 가꾸기, 꽃꽂이 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목산수 | 셋슈



천교립도 | 셋슈, 1501년 이후
중국 남송의 화승인 옥간의 영향을 받았다.

05 모야마 시대(1573~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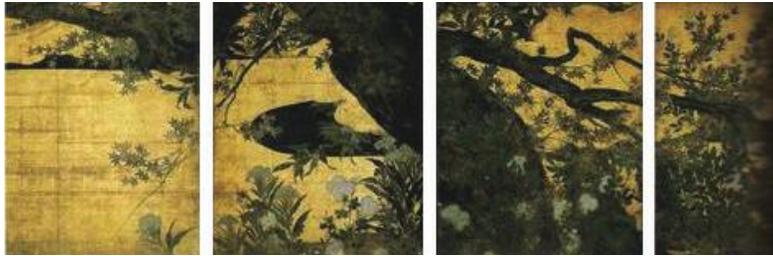
쇼쿠호 정권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근세로 진입한 시기로, 강렬한 표현과 호화로운 장식을 보여주는 현세주의적 인간 중심의 문화적 경향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일본화적인 독자적 화풍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무가의 초상화, 부처와 부인상, 유아상 등 풍속화가 확립되었고 쇼헤이[장벽(障屏)] 그림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금·은을 사용한 금벽화가 유행하였다. 소서원(小書院) 등의 사적인 곳에서는 수묵화를 선호했다.

이 시대의 화가들은 중국 그림을 일본화하고 다각적인 표현으로 유파를 형성했는데 카노오파가 대표적이다. 가이호파의 가이호 유소는 남송화의 양해 화풍을 모방하여 필치를 생략한 감필법을 구사하였다.

① 선종의 유행. 가면, 다도, 정원 가꾸기, 꽃꽂이 등 일본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② 쇼헤키에 기법이 발달(호화스러운 금박지에 석채를 사용하는 장식적 그림)하였다.



하세가와 도하쿠, 금지에 채색



하세가와 도하쿠



카이호 유소

06 에도 시대(1603~1867)

1

I 회화 I

- ① 전통극 가부키가 나타났다.
- ② 회화 유파 구분
 - ㉠ 가노파(장식화파=린파)의 풍속화가 주류를 이룸. 다와라야 소타쓰가 창시한 린파는 특수한 묘선과 다라시코미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창의적인 회화를 창조
 - ㉡ 문인화파(중국 화풍), 양풍파(서양화 표현 기법), 사생파(서양화의 투시도법, 자연 그림)

용어정리 다라시코미 기법

색면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채를 그 위에 칠해 자연스러운 침투에 의해 색채 효과를 얻는 기법

알아두기 우키요에

1. 우키요에 출현 - 판화기법의 민중적 풍속화 양식
오쿠무라 마사노부는 메가네에의 취향과 서양의 투시원근법을 도입한 **우키요에**를 창안하였다. 이는 붉은 색 위주의 **단에(탄에)**, **베니에(베니주리에)**, **우루시에** 등에서 발전한 것이며, 스즈키 하루노부가 다색 목판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2. 우키요에란?
우키요에는 일본 서민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풍속화로, '덧없는 세상, 속세'를 뜻하는 말이다.
3. 우키요에의 화풍
 - ① 우키요에가 보여준 **자유롭고 강렬한 색채, 과감한 시점과 구성**, 도덕적 속박에 구애되지 않는 거침없는 상상력, 세속적 세계의 특수한 장면을 포착해내는 구도는 서양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② **평면적인 채색은 윤곽선을 중시하는 형태와 일치한다.** 일본의 목판화에서는 무엇보다도 **크기의 대담한 대비와 그림 각자리에 의해 대상이 잘려나감으로써 깊이감이 생긴다.**
 - ③ **형태의 단순화, 강렬한 색채 대비 및 부드러운 음영, 그림의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첩을 쓰고, 크기를 대담하게 대비시켜 표현한다.**



카나가와 만(灣) 앞 바다의 파도 | 카츠시카 호쿠사이, 1833, 판화, 채색 우드컷

- 서양 원근법의 영향을 받았다. 한쪽에 치우친 구도, 중첩과 크기에 따른 깊이감을 구사했다. 배의 크기를 통해 화면에 깊이감을 주었고, 파도의 형상은 겹쳐서 깊이감을 주고 있다. 형상들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들 또한 깊이를 암시한다.
- 형상, 색채, 질감, 무늬의 반복을 구조화하여 시각적 조화를 빚어내며 통일된 구성을 창조해냈다. 대립과 균형을 통해 통일성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Chapter
03

중국 미술

01 선진 시대

- BC 21세기에 건립된 하대·상대에서부터 서주와 동주(춘추 전국 시대)를 '선진 시대'라고 한다.
- 청동기와 철기의 발명·보급, 사회 분업의 확대
- 예법과 도법 교육을 위해 청동기 제작(도철문 사용)
- 전국 시대에는 채색 칠기 목조의 발전
-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교훈적 벽화를 궁전과 사원에 그렸다.

1. 상나라

(1) 조소(옥석 조각)

① 도철문, 인물, 동물 조각 중심

① 도철문은 머리, 몸체, 뿔, 다리를 가진 두 동물의 옆모습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문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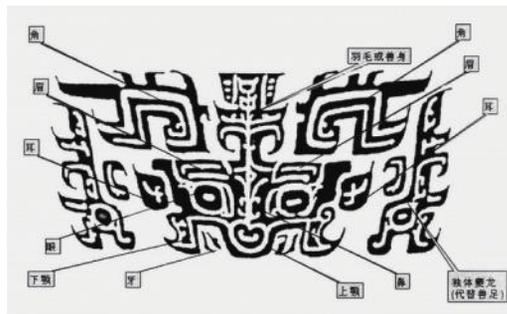
① 후대 명나라 주견심의 <일단화기도>에서 문양 사용 방식을 계승하였다(유가와 도가 결합).

② 조형이 간결하고 대칭을 이루며, 구성이 치밀하고 강한 입체감을 보여준다.

③ 입체조각이나 부조에 선각의 기법이 같이 사용되었다.



도철문유



도철문



(2) 회화

- ① 선진 시대의 회화는 인물초상화 위주이다(교훈적, 공덕 찬양, 예의와 도덕을 유지하는 작용).
- ② 인물은 모두 측면의 입상이며, 의관과 복식으로 그들의 신분을 표시한다.
- ③ 신체의 비례가 균형 있고, 몸가짐과 태도가 엄숙하며 경건하다.
- ④ 필선은 유려하고 힘이 있으며, 채색은 평칠과 선염을 겸용하여 장중하고 우아한 격조를 보여 준다.

(3) 기타

- ① 선진 시대의 도기로는 청유기(원시자기)와 각문백도, 상대의 회유도가 있다.
 - ➔ 백도는 자토를 원료로 하여 번조한 것. 그릇 표면과 태토가 모두 백색
- ② 대다수 반지혈식, 지면 건축이며 사각형과 맞배지붕 형식
- ③ 두공의 사용 ➔ 지붕의 무게가 수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전단 파괴 현상 해결

읽기 자료 채도와 흑도

중국 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은 채도와 흑도이며, 이는 크게 양사오 문화와 룡산 문화 두 가지로 구분된다.

- 1. 양사오 문화로 불리는 채도는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허난성, 간쑤성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붉거나 담갈색을 띤 토기를 말한다. 이 토기는 두텁고 투박하며 문양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2. 룡산 문화의 토기는 검은색을 띤 토기로 동이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얇고 정교하며, 광택이 있고, 문양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장식 문양에는 동식물 문양과 사람 모양이 있고, 채도의 문양은 다양한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하 문양이 대부분이다.



어문문 | 채도, 양소 문화



선외문첨저병 | 채도, 양소 문화

2. 은·주 시대

- ① 세련된 문양의 청동기 주조술과 문화 발달 → 기하학적, 추상적 무늬 장식
- ② 문자의 예술성 → 금문과 갑골문을 통한 조형미의 추구



채도 항아리



청동광

3. 춘추 시대

- ① 제후의 세력이 증가하고, 노예제가 점차 와해되었다.
- ② ‘모인법’, ‘실랍주조법’ 등 새로운 주조기술 유행 → 반휘문, 반리문 유행

4. 전국 시대: 봉건사회 시작 = 철기 시대로 진입

- ① 세밀하고 정교한 일용 용기가 주를 이뤘다.
- ② 금도금, 상감, 투각, 금은 상감 등의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선진 시대 화론 - 춘추 전국 시대 |

1. 공자(BC 551~479)

「논어」, 「술이」에서 “도에 뜻을 두고, 덕을 지키며, 인을 의지하고 예술에 놀지니라.”
 ➔ 정치적 기준으로서 도, 덕, 인의 비평. 예술의 효율성 주장

2. 묵자(BC 480~420)

「묵자」, 미는 객관적인 존재 ➔ 공리주의, 유가의 '선'과 '미'의 동일성 부정

3. 맹자(BC 390~305)

「맹자」, 「만장상」에서 “비평자는 원래의 뜻을 곡해하면 아니 되며 예술의 전체에서 출발하여 전면적으로 고찰하라. 작가의 개성과 사상, 감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예술의 내용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남이 하는 말을 알며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유심주의적 수양방법 제시

4. 한비(BC 280~233)

미의 객관적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현실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귀신 그리는 것이 제일 쉽다.” 그림의 쉽고 어려운 정도와 조각의 도에 관한 이론을 문답식의 강론으로 「한비자」에 남겼다.

5. 장자(BC 370년 전후, 전국 시대 사람)의 '해의반박'론: '정신을 자유롭게'

예술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특수성, 즉 예술가가 창작할 때 마땅히 지녀야 하는 정신 상태를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어느 경우나 정신적으로 속박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정신이 조금이라도 긴장하게 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좋은 글씨를 쓸 수 없다.

6. 왕충의 회화 이론

- ① 미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대를 높이고 현대를 낮추는 것'에 반대하였다.
- ② 회화가 신선이나 귀신 사상을 선양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 ③ 회화의 효능은 문자에 의한 저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 ④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미워한다. 즉, 왕충은 신화를 그린 미술작품도 반대했지만, 문자로 기록된 신화 고사도 반대했다.